

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! 구명조끼는 필수!

- 심장에서 먼 곳(다리→팔→얼굴→가슴)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해요.

신고시 위치좌표가 바로 전송되는 해로드 앱(해수부) 설치해 두어요.

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시키고 부모나 어른의 시야에서 놀도록 해야 해요!

음주한 상태에서 수영은 절대 NO!

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요!

- ① 주위에 소리쳐 알리기 ② 즉시 119에 신고 ③ 주변의 구조물을 이용하거나 없다면, 차분하게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 ④ 구조요원에게 정보 제공

구조필요시에는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가급적 주변 물건이나 물에 뜨는 부유물을 이용해 구조시도 해야 해요!



< 긴 로프를 활용한 구조법 >



< 신발, PET병 활용한 구조 법 >

평소에 '생존수영'을 꼭 익혀두어요.



물 속에서는
코로 숨을 (으~)
내쉽니다.



물 밖에서는
입으로 숨을(파~)
들이마셔줍니다.

< 음파호흡법 >



숨을 크게 들이마시고
하늘을 바라보도록
눕는다.

양쪽 귀가 완전히
잠기도록 눕는다.

다리는 가볍게 뻗어
힘을 빼며 수면과
평행하도록 눕는다.

양팔을 벌려 올리고
균형이 흐트러지지
않도록 한다.

< 누워뜨기 자세 >

수심을 가능하기
어려워 물에 빠질
위험이 높습니다.

유속이 불규칙하여
와류(소용돌이)의
위험이 높습니다.

1 계곡에 들어가야 한다면

미리 수온을 체크! 다이빙은 절대 No!

- 계곡은 ① 얕고 불규칙한 수심으로 물속 바위에 부딪히거나! ② 낮은 수온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사고위험이 커요! ③ 또한 물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(와류)가 있을 수도 있어요!

일기예보는 꼭 미리 확인하기! 비가 올 경우 들어가지 않아요!

미끄러짐과 "머리"를 다치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!



2 계곡에 빠졌을 때는

몸이 떠내려갈 때는 흐르는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면서 가까운 물가 (육지)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서 탈출해요!

- 가능한, 다리를 떠내려가는 방향(하류)으로 하여 바위, 나무 등으로 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충격에 대비해요!

물길이 세지 않은 깊은 물웅덩이(沼)와 같은 곳에 빠졌을 때는,

-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양 팔과 다리를 벌려 누워 하늘을 보는 자세(누워뜨기 자세)를 취해 물에 가리앉지 않도록!
- 잠수에 자신이 있다면, 수심을 확인한 뒤 그대로 잠수하여 바닥을 차고(보빙동작) 수면 위로 떠올라 호흡을 유지하고, 보빙동작을 반복하여 양은 쪽으로 탈출하도록 해요!



① 익수

② 잠수

③ 바닥을 박차고 올라오기

< 보빙동작 >